

도계장 수송용기 세척, 소독시설 지원사업 추진

-시설 및 시스템교체로 닭고기 생산원가 상승을 줄여나갈 지혜 아쉬워-

농림부에서는 도계장에 출입하는 가축수송차량으로 인한 농장간의 질병 전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97년부터 위생시설을 현대화한 도계장에 가축수송차량과 닭수송용기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지원키로 하였다.

'97. 1/4분기내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가축수송차량 등에 대한 소독실시요령을 고시로 제정하여 '98년도부터 소독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규모는 도계장 개소당 2억8천만원이내이며 지원조건은 용자 70%에 자부담이 30%이고 용자조건은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작업장이 우선 적용되며, 도계물량이 많고, 자체 수송차량을 확보하고 주간도계를 하며, 작업장 시설을 현대화한 업체가 우선 대상자에 포함된다.

선정절차는 우선 사업 희망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군 및 시도에서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부에 제출하면 농림부에서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군 및 시도에 확정 통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업신청은 시군 축산과에 하는데 농림사업지원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서식참조)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시군에 97. 2. 15까지이며 97. 3. 22.까지 대상자를 확정통보 하게 된다.

사업지원대상자는 사업계획수

립시 사업내용에 명시된 시설 및 장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의 사업변경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 시·도지사는 변경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비 집행은 먼저 사업대상자가 시설 및 장비구입을 완료한 후 시장·군수를 경유 시·도지사에게 사업완료 보고를 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시설이 사업계획대로 설치되었을 경우 축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 사업자금을 지출토록 하게된다.

도계장들의 현재 업계현실은 수송차량의 소독시설만 개선하는 경우 많은 문제가 있어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예로 어리장을 바꾸는 경우 닭 운반수수가 40

%이상 떨어져 필연적으로 닭수송차의 대형화가 요구되고 농장진입의 도로 여건이나 농장환경도 개선되어야만 하며(닭 운반비 상승의 원가부담이 현재보다 50%이상 상향될 전망) 이밖에 도계장의 계류장 시설의 완전 개수가 필요해 현행 도계장의 협소한 계류장 면적을 감안한다면 각 업체의 부담은 6~10억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가 국가경쟁력 10%향상 운동을 추진하는데 반하여 도계장의 계류장 개선과 어리장 전면개선, 운반비 상승 등으로 닭고기의 생산비가 더 올라가는 결과로 하반기 수입전면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업계의 고민 해결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질병차단과 원가상승의 사이에서 슬기로운 지혜가 요구된다.

농림부 정시채 장관 취임

지난 12월 20일 신임 농림부장관에 정시채 전의원이 임명됐다.

정시채 신임 농림부 장관은 21일 취임식을 갖고 경쟁력을 10%이상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다음 몇가지의 과제에 역점을 두고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우선 첫째로, 쌀의 자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며, 둘째로 현장에서 응용가능한 실용기술개발을 촉진하여 비용은 10% 이상 줄이고 생산성은 10% 이상 높이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셋

째로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넷째로 농산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도록 하며, 다섯째로 일괄된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세계시장에서 우리농산물의 수출을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로 농촌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꾸준한 현장점검과 평가를 강화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21세기를 대비한 2단계 농업정책개발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닭고기 외식브랜드 해외진출 활발

치열한 국내경쟁구도 벗어나 점차 가속화 예상

최근들어 파파이스, 체스터후라이드 등 닭고기 외식브랜드들이 국내 시장의 치열한 경쟁구도를 벗어나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제당은 파파이스 본사인 미AFC사로부터 중국지역 프랜차이즈권을 획득하여 중국 북경에 치킨패스트푸드점 파파이스 2개 점포를 개점할 계획이다. 이 업체는 프랜차이즈권을 얻은 대가로 중국내 합작법인 매출액의 3~4%를 미국 본사에 지불하게 되며 출자지분은 대한제당이 60~70%, 국내 파트너는 20%, 중국측 10~20%선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또한 2천년까지 총 3

천만달러를 투자해 상해, 천진, 심양 등 3개의 점포를 추가로 개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치킨전문업체 한국체스터후라이드는 지난해 11월말에 나고야에 1호점을 개점해 교두보를 마련한 후 2, 3호점을 각각 오픈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착수금 65만불과 매출의 2%를 로열티로 받는 조건으로 일본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홍콩, 중국, 싱가포르 등과도 계약 조건을 상담중이어서 해외 진출은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도 닭고기소비 급성장

최근 3년 35% 늘어

지난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태국의 NCC(국립 컨벤션 센터)가 저널리스트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아시아 각국의 기자들은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만, 한국에 비해 축산여건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었는데 그중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 외국자본의 투자가 용이하다고 하였다. 특히 인도는 최근 3년간 닭고기 생산 및 소비량이 35%가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매우 확대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인도는 인구가 8억에 이르며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을 거듭, 인도사람들의 식생활 패턴이 채소류에서 축산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양계농가들은 아직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더라도 기존 영세농가 체계를 고수하면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현재 태국의 CP그룹이 인도에 대한 닭고기 산업 투자를 진행중에 있는데 많은 인도 양계산업 관계자들은 이같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인도의 닭고기 생산비는 kg당 0.6달러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태국 NCC 저널리스트 프로그램에는 우리나라에서 농수축산신문 김성훈 기자가 참가한 바 있다.

닭고기 가격조사 발표

도계된 포장되지 않은 지육통닭 가격

본회는 금년 1월부터 요리하기 직전 미포장상태의 통닭가격을 매일 조사하여 소비자 또는 일반 언론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 통용되는 닭고기시세는 주로 생닭기준으로 형성되고 있어 생산자나 축산업계에서는 이해가 빠르지만 소비자 또는 일반 언론매체에서 혼동이 되고 있는 것을 시정키 위해 닭고기시세(도계후 Ready-to-cook 상태의 포장되지 않은 통닭)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닭고기 가격은 본회 회원사들의 매일 공장도 가격을 조사해 알려주게 되는데 닭고기시세는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하이 공장도 가격을 통보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본회로 문의하면

매일 10:00~16:00시까지 그날의 kg당 닭고기 가격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금년 첫주인 1월 1일~4일 동안 서울지역 기준가격 하이 공장도 가격이 kg당 2,269원으로 조사되었으며, 1월 6일(월)부터는 국내 전역에 밀어닥친 한파와 폭설의 영향으로 교통이 두절되거나 닭의 스트레스로 kg당 2,731원으로, 8일(수)부터는 kg당 2,885원을 유지하고 있다.

본회는 앞으로 축산업계뿐만 아니라 경제신문, 소비자단체 등에도 닭고기가격을 통보해 매스컴 등에서 농장 닭시세로 그대로 보도되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97홍보비(특별회비)합천금 납부실적

전북양계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이기동)	1,000,000원
(주)충원농장 (대표 배선채)	1,000,000원
계	2,000,000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 도입 보건복지부, 관련기준 고시

최근 보건복지부는 식품의 안전성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HACCP)를 도입키로 하고 이에 관련된 기준을 고시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우선 햄과 소시지 등 식육제품 제조업체에 적용하고, 97년 말에는 어육제품, 98년에는 유제품, 99년에는 냉동식품, 2000년에는 기타식품 등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업체는 각종 위생 검사 등의 완화와 해당제품이 HACCP에 의한 생산품임을 포장지에 표시하고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우대하기로 하였다. 한편, 일단 이 제도를 도입한 업체는 별도로 팀을 구성해 작업장 및 제조시설, 보관 및 운반, 검사 시설 등의 위생관리를 하도록 했다. 또, HACCP 업무처리 기록은 해당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때까지 보관토록하고 2년에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평가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수의과학연구소의 협조로 계육업계도 금년도 시범적으로 1~2개 업체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부 인사

정부는 1월 7일 농림부 차관보에 이영래 농업정책실장을 임명하고 농업정책실장에는 안덕수 축산국장을 승진 발령했다. 또 축산국장에는 이관용 국장을 임명했다.

이영래 농림부 차관보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고시 8회에 합격하여 농림부 사료과장, 축산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축산국장, 주미농무관, 유통

국장, 기획관리실장, 농업정책실장을 두루 거친 정통 농업관료이다.

안덕수 농업정책실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12회에 합격하여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 농림부 무역과장, 시장과장, 회계과

장, 양정과장, 농업구조정책과장, 농업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주이태리대사관 농무관, 감사관, 축산국장을 두루 역임했다.

이관용 축산국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17회 출신으로 농림부 종합기획과, 지정과, 양정과, 자재검사소 서무과장, 주체네바대표 농무관, 주EC대표부 농무관, 농업금융과장, 농업구조정책과장, 농정기획과장, 공보관을 지냈다.

미국 양계박람회 참관 줄이어

97년 1월 22일(수)부터 3일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97전미양계박람회'에 장기간의 불황여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90여명의 인사가 참가할 예정으로 97년 7월 1일부터 닭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앞두고 업계의 노력이 활발하다.

본회도 시찰단을 구성해 박람회 참관과 타이슨, KFC 등 계열주체와 도계장·가공공장을 방문한다.

본회 시찰단은 김홍국회장이 인솔하는 팀과 대연식품 서대진 부사장이 인솔하는 2개 팀으로 나뉘어 닭고기 국제시장 정보수집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계육산업의 활로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시찰단은 국내 닭고기 시장확대를 위한 소비촉진활동의 일환으로 축산전문지는 물론 일간지, 경제지, 여성지 기자와 홍보전문회사 직원들을 대동해 적육을 앞서 폭발적으로 소비신장되고 있는 백색육 닭고기의 미국내 소비실태와 미국 소비촉진활동을 조사해 국내 닭고기 소비촉진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고 기자의 눈을 통해 닭고기의 우수성을 기사화할 수 있도

록 유도하며, 안내를 위하여 남두회 상무도 동행할 예정이다.

연말 닭고기 랜더링처리

불황장기화로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종계업계(원종회, 종발협)협조로 12월 31일(화), 1월 3일(금)초생추 51만 1천수를 랜더링 처리했다.

최근 양계협회와 본회는 소비부진에 따른 닭값 하락 장기화는 초생추 숫자 과잉에 있다는 데 공감해 (가칭)육계산업발전협의회 구성을 위해 3회에 걸친 회의개최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정확한 통계자료에 입각한 사전 생산조절과 닭고기 시장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활동 전개, 수입 전면개방에 따른 수입닭고기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한데다 연말연시 병아리 생산이 설날(2월8일)이후 닭값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비해 계열주체와 종계업계에서 각각 25만 5천5백수씩 총 51만 1천수를 랜더링 처리하게 된 것이다.

이는 수당 200원씩을 감안하면 약 1억 2백여만원 상당에 달하는 금액이다.

배합사료 영세율 법인은 제외

계열화 장려사업에 역행, 축산업 뒷걸음 우려소리 높아

축산업계 숙원이던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0'세율 적용이 오는 97년 7월 1일 부터 부업축산농가에서 모든 축산농가로 대상이 확대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99조 제4호 마목에 의거 시행령인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해 부업축산농가에서 모든 축산농가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 시행령 제2조(농·어민 등의 범위)에서 농민의 범주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농업중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배합사료를 공급받는 농민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규모의 120% 범위 안의 축산을 영위하는 자'로 (1)개인 (2)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한해 적용되며 기타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되지 않고 있어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정부가 그동안 농장의 법인화를 장려하던 정책과 위배되어 업계에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닭·돼지 계열화사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주게되어 배합사료가의 9% 가까이 절감이 되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계열화 사업을 포기하거나 생산비절감보다는 세제혜택을 위한 계약사육농가와 수매계약으로 바꾸든지 사료회사·농가 직거래 등 편법이 만연될 수 있어 염려가 된다. 기존 법인농장이 오히려 개인농가로 바뀌거나 무리한 방법으로 축산업이 퇴보할 조짐도 있는 것이다.

한편 동 특례규정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재정경제원 공고 제 1996-116호(96. 12. 14)로 고지되어 96. 12. 18까지 4일내에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어 관계당국의 무성의한 대처에 축산관련 단체 및 농가들의 빈축을 사고있다.

본회 등 축산단체 대표자들은 재경원 소비세제과를 방문해 부당성을 제기하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안) 제2조(농·어민등의 범위)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포함되도록 건의서를 내

정부가 장려하는 전업규모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계열화 업체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 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의 해결을 위해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기업축산(A형), 기업 시험(연구)사육(A-1형), 계열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A-2형), 개인이 경영하는 법인농장(B형), 정부연구기관(C형), 농협·축협 사업장(D형), 대학연구기관(E형), 종교단체 법인농장(F형)으로 분류해 축종별로 사육규모, 배합사료 사료구입량, 부가세 납부액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령 개정시 참고할 예정으로 있다.

자외선 이용 종란 살모넬라 제거

부화장에서 종란의 청결도가 부화나 부화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일련의 실험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들 실험을 요약해보면 △10만개의 살모넬라로 처리된 종란과 △살모넬라 세포액에 담긴 종란에 자외선을 비춘 결과 전자는 75%, 후자는 15%가 각각 제거됐다. 또 각 처리구의 일부종란에는 더러운 종란을 모의 실험하기 위해 무균의 계분을 입히고 자외선을 쬐었는데 거의 제거되지 않았다. 한편 부화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직원 모집

본 회는 신입사원(취재 기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1. 대상
 - 발전하는 계육산업의 일익을 담당할 자
 - 현재의 미약함보다 미래의 창대함을 추구하는 자
2. 자격
 - 축산업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졸 이상)

3. 필요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자필로 A4용지 2매이내)1부
 - 학과장 추천서
4. 마감일: 97.2.15(토) 12:00
5. 면접일: 개별 통보
6. 연락처: 한국계육협회 (Tel: 536-9855~6)

화이트 미트의 시대!

KS닭고기회사

하림이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회사

(주) 하림
HALIM & CO., LTD.

지난해 1인당 육류소비량 29kg

90년 대비 9kg(44%) 증가

축협중앙회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우리 국민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8.65kg으로 95년의 27.45kg에 비해 1.20kg(4.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0년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이 19.92kg이었던 데 비하면 8.73kg(43.8%)이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인당 육류 소비량을 종류별로 보면 쇠고기는 7.09kg으로 95년의 6.72kg에 비해 0.37kg(5.5%)이 늘어났고 돼지고기는 15.30kg으로 95년의 14.75kg보다 0.55kg(3.7%)이 증가했으며 닭고기 소비량은 6.

26kg으로 95년의 5.98kg에 비해 0.28kg(4.7%)이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지난 90년에 4.01kg 이던 것이 작년에는 6.26kg으로 2.25kg(56.1%)이 늘어났다.

한편 올해는 우리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30.50kg으로 작년에 비해 1.85kg(6.5%)이 늘어나면서 처음 30kg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에 비해 올해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11.4%, 돼지고기 소비량은 4.6%, 닭고기는 5.4%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축협은 추정했다.

국내산 육류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

농림부는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10조, 1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28조 규정에 의거 '97 국내산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요령을 고시했다.

국내산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를 통한 신속·정확한 잔류경향 분석 및 효율적인 잔류방지 유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육류생산기반 정착으로 양축농가의 소득 보호, 육류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보건 향상 및 국내산 육류에 대한 신뢰도 증진 및 품질경쟁력 제고로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을 위하여 계도검사와 규제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주관으로 97년 연중 실시하며 계도검사 실시는 닭의 경우 도계시 지육검사(연간 1만 1천수)를 실시하고 소·돼지는 계도검사로 도축시 지육검사(연 3만 4천두), 도축 전 생체검사(연 3만 두)를 실시하고 계도검사시 특

별관리대상가축 및 절박도살 소, 화농부위, 기타 주사자국이 있어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축에 대해 규제검사를 실시한다.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는 정성검사 및 정밀정량검사를 국내 육류잔류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지육내 약품잔류 예방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게 된다.

검사 시료는 닭의 경우 도계장에서 1농장 1시료 무작위 채취를 원칙으로 하며 흉부 등 지방이 없는 부위에서 정량분석에 필요한 시료량을 포함해 근육 100g 이상을 채취하고, 농약검사를 위한 지방 10g 이상을 별도로 채취한다.

지육검사 결과 잔류 검출 판정이 나면 해당 출하농장을 추적해 특별관리대상농가로 지정하며 사양관리실태점검 등 잔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해당 농가에 개선방안을 계도하게 된다. 특별관리농가 지정 후 6개월간 가축 출하가 없거나 6개월 이내 재출하 한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를 실시 결과 무잔류 판정시 특별관리대상농가에서 해제된다. 도계시 시·도별 지육검사량은 부산 5백수, 대구 7백수, 인천 5백수, 광주 3백수, 대전 2백수, 경기 1천 9백수, 강원 6백수, 충북 8백수, 충남 1천 1백수, 전북 1천 3백수, 전남 9백수, 경북 8백수, 경남 1천 1백수, 제주 3백수 등이다.

(주)하림, 경영체계 팀별 운영제로 전환

그동안 본부단위로 운영되던 (주)하림의 경영체계가 팀별 운영제로 전환되면서 각파트별 독립운동을 통해 공격형으로 기업체질을 강화하였다.

(주)하림은 이번 조치와 함께 서형교 부사장을 영입하면서 모두 4인의 부사장 체제가 되었는데 이성운 부사장이 총괄 부사장, 김안규 부사장이 생산·영업 분야, 백승운 부사장이 사육 분야, 신임 서형교 부사장이 기획 분야를 각각 맡아 운영하게 됨으로써 각분야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해외사업부는 강남구 역삼동으로, 서울영업부는 경기도 용인 수지 사옥으로 이전하였다. 주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해외사업부>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88-15 범일빌딩 2층

* 전화: (02)3453-6050~1

* 팩스: (02)3453-2591

<서울영업부>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9-14 형제빌딩 4층

* 전화: (0331)263-6671~3

* 팩스: (0331)263-6674

계열주체, 96년에 68% 계약생산

-부분육·가공품 생산증대로 닭고기소비 신장세-

본회가 잠정 집계한 96년도 본회 회원사들인 14개 계열화사업체의 연간 도계수수는 2억 2천 4백 8십만여수이며, 계열농가 사육 생산수수는 1억 5천 1백 3십만수로 도계량 중 약 68%가 계열사 자가생산으로 알려졌다.

평균 계열농가수는 월간 1천 1백 9십 농가로 집계되었으며 계열주체의 냉동 닭고기 수입은 904톤, 수출은 133톤으로 알려졌다. 한편 96년 6월말 기준 9개 계열주체의 PS 보유숫자는(육성계 포함) 1백 50만수 이었던 것이 12월말에는 1백 48만수로 줄어 종계업체의 우려와 달리 계열주체들은 96년도 종계숫자의 감소를 가져와 96년 하반기 소비부진과 종계숫자 증가로 야기된 불황의 원인이 계열주체 병아리 생산 보다는 일반 종계업체의 무분별한 종계입식 증가 및 환우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금년도 본회 회원사들의 수급자료에 의하면 14개 계열주체의 닭고기 생산 계획은 도계수수 기준 2억 6천 6백 4십만수로 전년대비 14% 정도를 더 생산할 예정이며, 계열사육은 65% 수준인 1억 7천 3백 8십만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15% 정도 더 생산될 예정으로 96년에 비해 2천 2백 5십만수 가까이 증가될 예정으로 계열사 자가생산 기반을 늘려나가는 것으로 현재 추세로 보아 월간 계약사육농가는 96년 대비 6%정도 늘어난 평균 1천 2백 6십 농가에 이를 전망이다.

닭고기 수출입은 연간 1천 2백톤을 수출할 예정이며 수입은 1천 1백 4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계 보유는 9개사에서 육성계를 포함해 1백 7십 8만수(97년 6월말)에서 2백만수(97년 말)를 보유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국계육협회 회원사의 닭고기 가공품 생산 실적은 96년도에 부분육(절단육)판매가 전체 닭고기 생산의 11.6%에 달하는 2천 6백만수로 알려지고 있으며, 2차 가공품 생산은 3.0% 수준인 6백 8십만수에 달해 대부분이 통닭 형태로 유통되고 있었는데 비해 97년도에는 부분육 10.5%(2천 7백 8십만수), 2차 가공품 10.4%(2천 7백 7십만수)수준으로 닭고기 가공품의 생산을 확대 할 예정으로 닭고기 유통시장 판도의 변화는 물

론 다양한 가공품 개발로 닭고기의 소비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 공동조사 농림부, 검역소, 수의연, 사육소

국내산 및 수입육류의 안전성 확보로 축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보호 및 잔류가능 동물 약품, 농약, 환경오염물질의 모니터링, 잔류물질 사용규제, 감시강화를 위해 육류잔류물질 검사 및 모니터링을 농림부, 동물검역소, 수의연, 가축위생시험소 공동으로 조사한다.

금년도 연중으로 실시하는 공동조사는 유해성 잔류물질의 최대잔류 허용한계치 설정 및 검사 강화를 위해 허용한계 초과에 따른 원인조사와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잔류가능한 화학물질 사용규제 및 검사 강화를 위해 이번에 전국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내용은항생물질·합성항균제(설파제), 농약에 대한 모니터링과 홀몬제·중금속 등 탐색조사를 하게 되는 이번 공동조사를 위해 소·돼지·닭의 근육 및 지방, 원유 및 계란을 대상으로 식육 시료 3백건, 원유 3백건, 계란 1백건에 대해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해 동일개체의 근육 250g 이상 및 지방 10g 이상을 조사한다.

깨끗하고
신선한 닭고기-



MIWON 마원마니커주식회사

신선하고 깨끗한
HAIMARROW **해마로치킨**

Chicken



(주) TS해마로
TS HAIMARROW Co., Ltd.

97년 계육인 신년 인사회

-고문추대 및 자문위원 위촉장 증정-

지난 1월 7일(화) 오후 5시에 팔레스 호텔에서 본회 주최로 97 계육인 신년 인사회가 개최되었다.

계육업계가 산업화된 이후 최초로 개최된 이번 신년 인사회에는 회원(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과 관련 업계, 기관, 유통종사자, 신문사 등 총 124명의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특히 회원사에서는 경영자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임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업계발전을 위한 만남의 장이 되었다. 또한 각 회원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유통업계 인사들이 참석하는등 계육산업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여 정축년 새해 계육산업계의 발전과 도약을 다짐하였다. 계육업계가 지난해 장기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97년은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해 역동적으로 발전할 것을 기약했다.

한편 이번 인사회에서는 지난 이사회에서 결의된 본회 고문 및 자문위원에 대해 고문 추대장과 자문위원 위촉장 증정식이 함께 거행되었는데 이로써 본회는 고문 6인과 자문위원 5인 등 모두 11인의 업계의 원로와 각 분야의 전문적인 인사들의 도움

에 힘입어 폭넓고 깊이있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본회 회원가입 계속증가

본회의 회원이 지난해 본회 명칭과 정관의 변경이후 꾸준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정회원 31개사 대표(통합경영분과 13, 가금처리분과 18), 준회원 39개사 대표, 특별회원 24명으로 총 94명에 이르고 있으며 새해 들어서도 계속 회원가입 신청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본회 명칭이 지난해 변경된 후 사업내용과 회원자격이 확대 되었고, 회원사 간 협조체

제 구축으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보·자료 교환, 경영자문, 현안 문제 공동 대처 등 많은 잇점이 있다는 것이 업계에 인식되고 있는 것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협회 회원의 자격은 정회원은 계열생산주체 및 가금처리업체가 대상이며, 준회원은 계육산업계 관련된 모든 분야로, 사료, 동물약품, 기계·기구, 부화, 종계, 외식산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종사자가 대상이며, 특별회원은 관련 기관, 학자, 학회 등이 대상으로 되어있다.

본회 가입은 협회 소정 양식의 입회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관련회비를 납부하면 되며, 회비는 정회원은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납부하고 있으며, 준회원은 연간 10만원, 특별회원은 연간 3만원씩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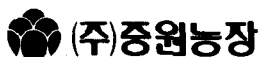
계열사 생산책임자 회의 개최

지난 12월 20일 이천에서 본회 계열사 생산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97년도 계열사 생산책임자 회의 운영방향에 대한 토의를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격월 한번씩 모임을 갖기로 하였으며 좀 더 유기적인 활동을 위해 회비를 모아 경조사 등 회원들간 서로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협회 주관

하에 회원사들간의 정보 공유는 물론이고 각 사별로 문제점을 도출해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각사가 월례회 주제를 미리 설정해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하도록 하며, 모임에서 필요한 토론과 사례에 대한 논의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한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결의 하였다.

에 이 비 안

대한양계협회 능력검정 '94, '95 2년 연속 1위!
에이비안은 육계농장 계열주체 에 더 많은 이익을 드립니다.



영입부 TEL (0417)567-7792, FAX (0417)554-0771

STORK® 세계 최대 최고의 Meat Group

STORK PMT 도계설비 (Nu-Tech 내장적출)

STORK Rendering 부산물 처리

STORK Protecon 육가공 설비

STORK Titan 식품가공 설비

STORK Aqua 오, 폐수 처리



한국내 총대리점
(주)유경축산

Tel (0357)31-6073

Fax (0357)31-9353